Bobcat



뉴스홈 | 최신기사

'올림픽 특수' 실종..청주 유통업계 '울상'

송고시간 | 2008-08-08 14:10











전성훈 기자

<올림픽 특수' 실종..청주 유통업계 '울상'>

(청주=연합뉴스) 전성훈 기자 = 베이징(北京)올림픽이 8일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하는 가운 데 올림픽 반짝 특수를 기대했던 청주지역 유통업체들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예상했던 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아 울상을 짖고 있다.

전자제품 전문 '하이마트' 청주 가경점에 따르면 소위 올림픽 특수라고 불리는 개막 전 한달 동안 대표적인 올림픽 효자 상품인 TV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0%가량 줄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보다도 15% 감소했다.



이 지점은 보통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낡은 TV를 최신 LCD나 PDP TV로 교체하려는 사람 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30%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대했으나 이 같은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.

지점 관계자는 "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올림픽 한 달 전부터는 소폭이나마 매출이 오르는 게 보통인데 올해는 특수라고 말하기 조차 민망할 정도"라며 "이미 올림픽 장사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"고 말했다.

청주시 가경동에 위치한 대형 할인매장 홈플러스 청주점의 경우 올림픽을 앞둔 지난 한 달 동안 TV 등을 중심으로 20%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대했으나 실제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증가 세에 그쳤다.

그러나 이 같은 미미한 매출 증가도 지점 인근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입주민들의 가전제품 구입이 증가한데다 최근 지 속된 무더위로 에어컨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지 올림픽과는 무관하다는 게 업체측의 설명이다.

업체 관계자는 "보통 올림픽이나 월드컵 개막 전에 많이 나가는 LCD나 PDP TV의 가격이 최근 최대 30% 가까이 내 린 상황에서 이 정도 매출이면 올림픽 특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"라고 말했다.

이마트 청주점은 다른 곳보다 매출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기대치보다 저조한 결과는 마찬가지다.

특히 한국과 카메룬 간 올림픽축구 예선전이 벌어진 전날 맥주 등 주류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평소 매출액인 300여만원에도 못 미치는 판매량을 기록하는 데 그쳐 올림픽 기간 내내 이 같은 매출 부진이 계속될까 노심초 사하는 분위기다.

유통업계 관계자 대부분은 이처럼 이번 올림픽 특수가 실종된 데 대해 치솟는 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체감 경기 악화 와 소비 심리 위축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.

한 업체 관계자는 "지난 2002년 월드컵과 2004년 올림픽 당시에도 경제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소비심리 가 비교적 견고해 어느 정도 매출 신장이 있었다"며 "그러나 올해의 경우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지갑을 여는 소비 자들이 많이 줄었다"고 말했다.

또 다른 관계자는 "경제 불황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올림픽에 대한 국민 열기가 예전 만큼 못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"라















핫뉴스 →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다섯식구 평균키 203cm...美 가족 '최장신' 기네스북 등재

'왕좌의 게임' 출연배우,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범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험 또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

며 "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지속하는 한 올림픽 cielo78@yna.co.kr	및 특수는 그야말로 옛말이 될 것"이라고 말했다		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글	·자> 2008/08/08 14:10 송고		당신을 당한 준영(대는 롯데함 LOTTE CASTLE www.lattecaste.co.ht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			We Do Technology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			
현장 영상 →			
▶ 01:18 [영상]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	▶ 02:22 [영성] 곡사포수송헬기·장갑차美,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	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든 컨 등 후보군"	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			
			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 ● 영상
			▶ 01:59 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패싱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			● 뉴스

尹당선인 "물기상승 장기화 대비...금리인상 취약층 피해 최

안철수 "공동정부 정신 훼손될 일 있었지 만...임기 끝까지 최선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'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"

댓글 많은 뉴스

김건희 여사 팬카페, '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 □ 158 찰에 고발

2 '유퀴즈' 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_ ⊕ 67 안 맞아"(종합)

3 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·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활동 □ 56 재개 예열?

4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 _{∰ 41} 힐예정"

5 [팩트체크]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계곡살인을 검

뭐하고 놀까? ## 😛 →



















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

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

광고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.톱뉴스/사설 이시각.헤드라인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/홈페이지 출판물 뉴스+

모바일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

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(K-ODYSSEY) 채용 IR클럽 #홍

계약사/제휴문의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대표이사] 성기홍 [편집인] 조채희